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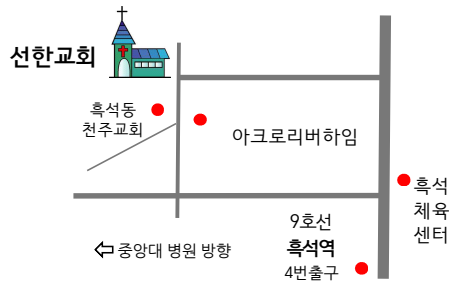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비전워십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장 로	조윤익		
	편도선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벧후 2:18)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3장 (통일찬송가 23장)			
교 독 문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찬 양 과 경 배	585장 (통일찬송가 384장)			
기 도	조계승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베드로후서 2장 12~22절		삼상 26:5~12	
설 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임춘배 목사)		내 안의 사울 죽이기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조용준 청년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김은희 권사		
성 경 봉 독	창세기 2장 1~3절		
설 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임춘배 목사)		
찬 양	36장 (통일찬송가 36장)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임춘배 목사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 115편 1~18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드보라회입니다.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제 직 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3. 새 생 명 축 제	1. 날짜: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축제예배(2부) 2. 초청할 분들을 기도하며 정하고 <u>작정카드를 작성하여</u> 각 부서 부장 및 회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방전도 일정 ① 토요일전도: 11월 16일(토) 오후 1시 ② 금요일전도: 11월 1일, 8일, 15일 오후 6시 30분~7시 30분	
4. 저 녁 기 도 회	수능생과 새생명축제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 기간: 11월 4일~15일(매 주 월~금요일), 시간: 저녁 8시 * 장소: 2층 본당	
5. 성 탄 절 칸 타 타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진행중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매주일 2부 예배 후 지하 2층 연습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현석 집사	
6. 총 회	11월 24일(주일)까지 각 부서 총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죄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하는 신실한 신앙이 되도록.
-----------	--

찬송 :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통470)

본문 : 마태복음 14장 22~32절

말씀 : 지나간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과거만 회상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지나간 일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비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그때가 좋았었지'라고 회상만 하면 원망과 후회, 자책의 눈물만 흐르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주신 꿈을 품고 살다가 복 받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면, 미래가 보이고 지금 처한 온갖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시자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바람이 강해져서 제자들이 탄 배가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풍랑으로 휘몰아치는 물 위로 돌렸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주위 환경, 상황을 바라보고 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경제, 건강, 관계 등 두려움을 주는 위기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이기는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위기라고 여기는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과 두려움만 줄 뿐입니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절망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순간 찾아오는 두려운 감정과 절망적인 생각으로 떨 수는 있을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과 구원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수렁에 있을지라도 건져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왜 의심했느냐"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한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구원과 평안과 보호, 생명을 약속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제 목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벧후 2:12~22)

서 론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의 죄와 악영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 거짓 선생들의 죄와 악영향들

- (1) 거짓 선생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고(12절) 욕망과 탐욕을 가진 '저주의 자식'임(14절)
- (2)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15, 16절)
- (3) 이들의 가르침은: ①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임(17절)
② 자유를 준다 하여도 죄의 종이 되게 함(19절)
- (4) 죄에 매였던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속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22절)

본 론

2. 교훈

- (1)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인가?
- (2) 이들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인가?
- (3) 죄에 매였던 옛 상태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결 론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조계승 장로	박영근 장로
2부 예배 헌금	방성자 집사	오세영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은희 권사	김정원 권사
주 방 봉 사	드보라회	여호수아회

매일 Q.T.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날짜 : 11월 4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본문	시편 65:1~13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기도를 들으시며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이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땅을 돌보사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상질문 1	주님 성전의 아름다움 65:1~4 시편 지가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나눈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목상질문 2	온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65:5~13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어떤 일들을 행하시나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내가 누리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65편 9절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기에 곡식이 자라고, 산을 돌보시기에 자연경관이 유지되며, 바다를 돌보시기에 많은 물고기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먹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안겨 주시는 분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며, 자녀로 택해 주시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음이 제 평생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자연 만물과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늘 찬송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과 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 304) 내 평생 사는 동안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년)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은 추수가 끝난 들판에 세 명의 여인이 이삭 줍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세 여인 뒤로 수확한 곡식을 쌓은 풍성한 단과 수레에 가득 실린 곡식이 보입니다. 얼핏 목가적인 농촌 풍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살았던 밀레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솔직하게 담아낸 그림입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사회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했고, 그 결과 그림 속 장면을 지구에게 착취당하는 농민의 모습으로 여겨 밀레를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밀레는 사회 문제를 고발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 주시는 분임을 묘사함으로써 세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임을 표현하려 했던 것입니다. 밀레의 다른 작품인 <만종>에는 가난한 농부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얻은 수확물이 노동의 결과가 아닌 하늘에서 내린 비와 따뜻한 햇살, 적당한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난한 삶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나누기	시편 65:1~13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돌보십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거나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누리는 온갖 좋은 것과 풍족함을 자기 노력과 열심의 결과로 여기며 자랑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임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관찰과묵상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했나요?(4절)
적용하기	내가 하나님께 가장 받길 원하는 복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짜 : 11월 8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본문	시편 68:1~18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의인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가난한 자를 위해 은택을 준비하십니다. 이방 왕들을 흠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내산 성소에 계심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묵상질문 1	일어나시는 하나님 68:1~6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야 할 행실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앞서가시는 하나님 68:7~18 하나님이 앞장서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 쉽게 해결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넓은 품으로 안으십니다. 세상에서는 고아나 과부라는 것이 약점일 수 있습니다. 혈연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고아나 과부는 최소한 보호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많은 아버지로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사랑받는 사람만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연약하고 외로운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현실 이면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날짜 : 11월 5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본문	시편 66:1~2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큰 권능으로 원수를 굴복시키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66:1~4 시편 기자가 온 세상 사람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경험한 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66:5~7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66편 6절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한순간에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사람들이 그곳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한계와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사람에게는 기적이라 여겨지는 놀라운 일을 능히 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새로운 삶의 지평을 경험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성도에게는 일반적인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삶의 문제는 작아지고 구원의 소망은 커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홍해 앞에 서 있듯 가로막힌 제 삶에 새 길을 내주시길 기도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의 단련과 기도 응답	날짜 : 11월 6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본문	시편 66:8~20		
말씀요약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성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묵상질문 1	단련하시는 하나님 66:8~12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단련하시나요?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연단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나요?		
묵상질문 2	응답하시는 하나님 66:13~20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내 의를 드러내나요, 마음속 깊은 죄악을 고백하나요?		
한절묵상	시편 66편 10절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신앙 훈련의 과정입니다. 시험당할 때는 근심할 수 있고 좌절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단련 받는 시간을 거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히 5:8),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시 119:71). 고난은 성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영적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영혼을 살리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험과 인생의 짐이 믿음을 단련시켜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리게 하소서.		

매일 Q.T.		온 세상이 복받고 찬송하기를 구하는 기도	날짜 : 11월 7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본문	시편 67:1~7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알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에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67:1~4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도록 나와 공동체가 협력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주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67:5~7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시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한절묵상	시편 67편 7절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기 열심과 열정의 정도에 따라 누리게 될 복의 내용, 수준, 양 등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주권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무슨 복을 받으실지에 관심을 두기보다 복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도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 뜻을 알고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게 하소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